초중고생 700만명 붕괴… 교원은 늘어

2011 한국 사회지표

범죄 줄었지만 강간 사건 23% 급증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100만명 육박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700만명 선으로 처음 내려갔다. 교원 수는 43만2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0년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보다 1.2% 줄었으나 강간 범죄는 23%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기존의 통계자료를 가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초중고교생 698만7000명…초등교사 100명 중 76명이 여성**=2011년 초중고교생 수는 698만7000명으로 1991년 920만2000명에서 20년 새 31.7% 감소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감소폭이 34.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은 13.7%, 중학생은 16.8% 줄었다.

지난해 초중고교 교원은 42만2000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3명으로 20년 전보다 17.1명이나 줄어 중고교보다 감소폭이 컸다.

초등교사 중 여성 비중은 1991년 51.6%에서 지난해 75.8%까지 늘었다.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2.5%로 1991년(33.2%)보다 배 이상 늘었으나 2008년(83.8%)을 정점으로 3년째 하락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75.0%)은 남학생(70.2%)보다 높은 상황이 3년째 이어졌다.

◇**고령자 의료비 비중 31.6%…장기체류 등록외국인 100만명 육박**=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0년에 31.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10년 새 14.2%포인트 급등했다.

2000년 247개였던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2010년 4150개로 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인구는 지난해 98만2461명으로 전체인구의 1.97%를 차지했다. 1990년 4만9507명에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90년 32.3g에서 2010년 52.9g으로 증가했지만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은 같은 시기 327.6g에서 195g으로 크게 줄었다.

◇**범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강간은 급증**=2010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1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그러나 강간 범죄 발생은 1만9939건으로 23.4%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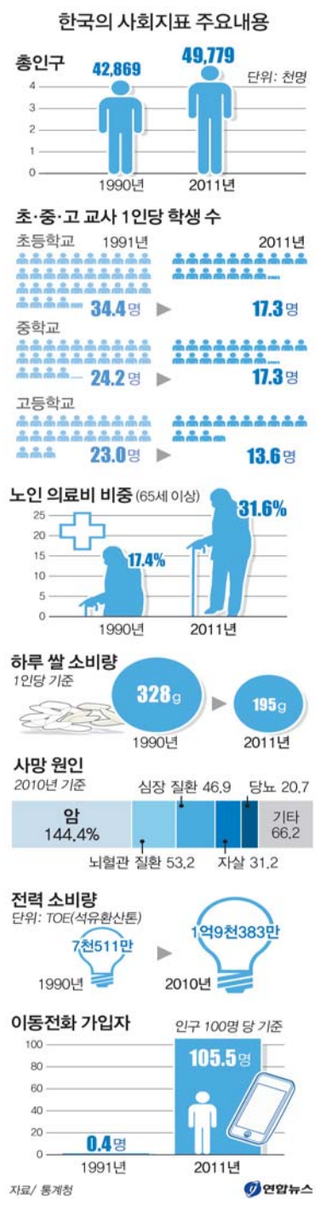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이었다. 위암 사망률은 감소세지만 폐암, 대장암, 췌장암은 증가세다.

◇**전력소비량 20년새 5배…이동전화가입자는 260배**=2010년 전력총소비량은 43만4천160Gwh로 1990년의 5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는 인구 100명 당 105.5명(총 5천251만명)으로 2010년에 이어 총인구보다 많았다. 1991년 0.4명에서는 20년간 260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도로는 10만5565㎞로 1990년 5만6715㎞의 갑절만큼 길어졌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시·전남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광주·전남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부 고발자 불이익 없애고 신변보장

권익위, 광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광주 5·18 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한마디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본다.

◇**실시 배경**=그동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분 누설 금지'과 같은 선언적 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불이익 우려에 따른 내부 고발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보장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익신소자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

◇**신고 대상**=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180개의 공익 침해 대상 법률이 정해져 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 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등이다. 즉, 180개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위반 행위가 바로 공익침해 행위가 된다.

◇**신고 방법**=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 침해 대상자와 공익 침해 내용과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와 관련,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 등의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않는다.

◇**보상금과 구조금**=보상금이나 구조금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있어야 하며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어 대법원의 판결 등이 확정돼야 한다.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겪으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구조금을 받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 기간의 임금 손실,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그 밖의 경제적 손해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구 쪼개져 지역기반 잃고도 선전

이개호 '아름다운 경선 승복'

4·11 총선을 통해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던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민주당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뒤 주민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되새기며 다음 기회를 약속했다. '경선 불복'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선 승복 선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4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영광·함평·담양·장성 경선에서 4570표를 얻어 이낙연(1만3939표) 의원과 이석형(1만1395표) 전 함평군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불리한 여건에도 4500여 표를 득표해 이전 부지사의 선전이 지역에서 '회자' 되고 있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쪼개지면서 담양을 제외한 지역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이 전 부지사에게 이번 경선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또한, 선거인단 경선은 그에겐 불공정 경선이나 다름없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선거구를 쪼개고, 그것도 경선 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이 전 부지사가 영광·함평·장성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전 지사는 당당히 경선에 임했고, 4500여 표를 획득했다. 그는 15일 '지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승리한 이낙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드리며, 선전한 이석형 후보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며 "경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민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고,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소수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가치에 함께 해준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道선관위, 검찰에 고발

전남도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광주일보 15일자 3면**〉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50분께 영광군 영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민주통합당 경선 투표과정 중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영광 선관위 이모(55)지도계장의 카메라를 부수고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무안군수 후보경선 투표장 인근의 CC-TV 2대에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마친 뒤 돈 봉투를 나눠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작업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 전격 해임

中, 계파간 권력투쟁?

후임에 장더장 부총리

측근 왕리쥔(王立軍)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서기가 해임됐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은 14일 보시라이를 충칭시 서기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임명키로 결정했다.

충칭시 서기 등 충칭시 관련 직위에서 해임됨에 따라 보시라이는 당분간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직만 갖게된다.

보시라이는 왕리쥔 사건 이후에도 홍색행보를 지속하고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등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4일 열린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보시라이는 반성해야 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조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보시라이가 해임됨에 따라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태자당의 일원인 보시라이의 낙마로 중국 핵심부의 권력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권력 이양을 앞두고 각 계파간 치열한 권력 투쟁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목포용해동[독서실]	목포상동[유흥주점]	수기동 [12층관광호텔]	동명동[고시원]	신안동[근린시설]	순천상사[유스호스텔]	풍암동[다가구]
대872m2,건929m2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4억3천	대980m2,건1057m2 감정가 19억9천 최저가 11억1천	대923m2,건7588m2 감정가 74억8천 최저가 18억7천	대1060m2,건2555m2 감정가 22억5천 최저가 14억4천	대445m2,건1088m2 감정가 10억3천 최저가 4억6천	대11559m2,3498m2 감정가 28억3천 최저가 12억7천	대210m2,건414m2 감정가 4억 최저가 2억8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강원정선[관광호텔]	☞ 대전[웨딩홀]	☞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 해남 땅끝콘도
▷대지 993평 ▷건물 4989평 ▷감정가격 85억 ▷매매가격 30억(협의후결정)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감정가격 222억9천 ▷매매가격 130억(협의후결정)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29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 곡성석곡 공장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정가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생활주택부지매매
▶운천저수지건너편명지아파트옆737평
▶도시형생활주택(29평형아파트)39세대건축허가포함
▶매매가14억5천만원(조정가)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란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란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3천만원 (H.010-6654-6888)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료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식당.매점. 현재성업중.매매가 9억원.
Tel : 대표.062-233-2222
직통062-373-3939. HP : 010-3616-869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봉선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20억 월임대료1,200만원
■봉선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120평 평당790만원(9억5천만)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진월동 5층학원건물 (건물평수 350평) (매가5억8천) 임대보증금9천만원/월임대료3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사거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만금,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격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종주거지역, 답 2334㎡ 매12억
현도로접,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 폭 큼.투자 유망 현재 원룸 공급 부족 여름 한철만 영업해도 년수익 보장
* 상록해수욕장 펜션 부지
계획관리지역, 답 1554㎡ 매10억
상록해수욕장 입구 2차선에 접한 토지로서 향후 지가 상승 바다 조망권 양호
* 격포 궁항 이순신세트장 펜션 부지
계획관리지역, 전 1654㎡ 매7억
요트경기장에 위치한 토지 펜션 운영시 고소득 보장, 바다 조망권 최상
* 상록해수욕장 펜션건물
대 942㎡, 건 264㎡ 매9억
신축 건물, 객실 7개로 월매출 약1500만 성업중
* 격포 체석강 호텔 및 리조트 부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전 2995㎡ 매50억
5층건물, 인허가 완료 변산반도 최고의 상업지 바다조망권 최고! 향후 토지지가 상승 기대 및 운영시 고소득 보장
* 변산해수욕장 리조트 부지
계획관리지역, 대 6798㎡ 매 50억
새만금에 근접한 토지 지가 상승 물론 향후 사업시 고소득 보장
저희는 변산반도 펜션 개발 전문 업소로서 펜션 운영시 투자 대비 년소득 25%이상이 보장된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원룸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펜션 사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062-952-5960, 010-8004-5900